

LS전선, 친환경 내열전선 개발

할로겐 원소 제거한 특수 절연재 사용 ... 자동차용 PP전선 이어

LS전선(대표 구자열)은 중앙연구소가 난연 및 무연 특성을 지닌 자동차 전선용 PP(Polypropylene) 전선에 이어 최근 LNG 선박에 사용되는 친환경 내열전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6월22일 발표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친환경 내열전선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할로겐(Halogen) 원소를 제거한 새로운 재료를 선박용 전선에 적용한 첫 사례”라며 “300℃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성이 높은 특수 절연재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선박용 전선보다 내열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LS전선은 친환경 내열전선을 최근 수주한 1300만달러 가량의 선박용 전선 프로젝트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향후에는 국내 조선업계 뿐만 아니라 해외 조선소 및 선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23>